
수바시 사원 서사대탑.

목포대학교 최연식 교수의
실크로드 답사기

고대불교 역사의 숨결을 느끼다

7월초 중국 신강성 쿠챠와 투르판 지역의 불교 유적지를 답사했다. 이번 답사는 서울대 동국대 등 국내 불교학자 30여명이 실크로드 불교 유적지 답사를 통한 연구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실크로드의 천산남로와 천산북로가 만나는 지역에 자리 잡은 투르판과 천산남로 중심에 위치한 쿠챠와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 도시면서 동시에 불교 신앙이 크게 융성했던 지역들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는 이른바 불교동전(佛敎東傳)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역사에 걸맞게 이들 지역에는 주요 불교 유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들 지역의 불적답사는 고대 불교의 역사와 문화, 특히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경험이 됐다.


최연식 교수.

수바시 사원서 구마라집 흔적을 쫓다

새벽 1시 우루무치 공항에 도착해 다시 몇 시간을 보낸 후 8시 30분에 출발하는 국내선을 타고 첫 번째 답사지 쿠챠에 도착했다. 쿠챠 공항은 공항이라기보다는 작은 버스터미널에 가까운 규모였고, 대합실 분위기도 시골 역을 연상시켰다. 한때 실크로드의 요충지로 번성했으나, 18세기 실크로드를 대신한 해양 개척후 사막의 작은 오아시스 도시로 위축된 쿠챠의 현황을 공항이 잘 말해주는 것 같았다.

쿠챠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쿠챠 시내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쿠챠강 상류의 수바시(Subashi) 사원터였다. 수바시 사원은 쿠챠 왕실이 후원하던 가장 큰 사찰이었다. 강을 경계로 서쪽과 동쪽에 각기 비구와 비구니들을 위한 사원이 있었고, 쿠챠 출신의 역경승 구마라집(鳩摩羅什)과 그의 어머니가 주석했던 사찰로 알려져 있다.

쿠챠 왕국의 공주였던 구마라집의 어머니는 쿠챠에 찾아온 인도 출신의 학승 구마염(鳩摩炎)을 흠모해 왕실의 권위로 구마염을 환속시키고 결혼했다. 구마라집을 낳은 후 문득 출가를 결심한 공주는 아들과 함께 이곳 수바시 사원에서 수행에 전념했다.

수바시 사원은 <고승전>의 구마라집 전기에는 작리대사로,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에는 조호리사로 일컬어졌다. 쿠챠 왕국 대표 사찰로 기록됐던 수바시 사원은 이슬람화된 10세기를 전후해 쇠퇴하기 시작했다. 13세기 이후에는 완전히 폐기됐고 지금은 황폐화된 흔적만 남아있다. 일반에게는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서쪽 사원만 개방 중이다.

석가모니불·미륵보살 그려진 키질 석굴

오후에는 쿠챠 시내에서 서북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키질(Kizil) 석굴을 찾았다. 키질 석굴은 무자라트(Muzarat) 강 북쪽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 따라 약 2km에 걸쳐 조성돼있다. 현재까지 236개 석굴이 확인됐고 그 중 135개 정도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다. 석굴의 개창시기는 3세기경부터 9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진다. 초기에는 승려의 수행을 위한 승방굴이 만들어졌고, 점차 예배를 위한 석굴이 많이 만들어졌다. 소박한 승방굴과 달리 예배굴은 불상과 다양한 벽화로 화려하게 장식됐다.

초기 석굴들은 중심기둥 앞면에 감실을 만들어 석가모니 불상을 모시고, 석굴 가장 안쪽 벽과 입구 내벽 윗면에는 각기 석가모니 열반상과 미륵보살 설법도를 그렸다. 열반상과 미륵보살 설법도를 같은 공간에 배치한 것은 인도에 없는 이 지역 고유양식이다. 입멸한 석가를 추모하는 동시에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 강림을 기원하는 신앙표현으로 생각된다.

석굴 벽화는 석가모니와 미륵보살만 묘사되고 다른 부처나 보살들은 등장하지 않았다. 다양한 불보살을 신앙한 대승불교와 달리 석가모니와 미륵보살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던 쿠챠의 불교신앙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석굴 안내원이 조심스럽게 열어준 제10호 승방굴 벽에는 키질 석굴을 조사하고 많은 벽화 모사도를 그린 한국 출신 한락연(韓樂然) 선생을 추모하는 글이 쓰여져 있다. 한락연 선생은 1946~1947년 동안 수많은 석굴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려진 벽화를 모사해 키질 석굴 연구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다. 한 선생은 애석하게도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여인이 사는 곳—키질가하

키질 석굴에서 쿠챠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는 키질가하(Kizil Gaha) 석굴을 둘러봤다. 쿠챠 시내에서 서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키질가하 석굴은 4~8세기 사이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61개 석굴이 확인됐고 11개 벽화가 남아 있다.

석굴로 걸어가는 길 중간에 높이 15m의 한나라 군대가 만들었다는 커다란 봉수탑이 서 있다. 위그르어로 '여인이 사는 곳'이라는 뜻의 키질가하라는 석굴 명칭은 봉수탑에서 유래했다. 점장이에게 "새로 태어난 딸이 성인이 되기 전 거미에게 물려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쿠챠 국왕은 공주를 봉수탑 꼭대기에 격리했다. 안타깝게도 봉수탑에 갇혀 살던 공주는 성인이 되는 날 선물로 전해진 과일을 먹다가 그 안에 들어 있던 거미에게 물려 죽었다.

하지만 쿠챠 공주가 한나라 군대가 만든 봉수탑에 격리됐다는 이야기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쿠챠 왕족이 한나라 군대에 의해 봉수탑에 유폐된 것을 전설로 표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섯 개 석굴이 하나로…쿰투라 석굴

쿠챠 답사 둘째 날 오전에는 쿠챠시에서 서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쿰투라(Kumtura) 석굴을 찾았다. 쿰투라 석굴은 쿠챠에서 키질 석굴 다음으로 많은 석굴이 밀집해 있다. 현재까지 112개 석굴이 확인됐고 이중 60여 개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다. 키질 석굴과 마찬가지로 무자라트 강에 면해 있고 두 석굴 사이의 거리는 약 15k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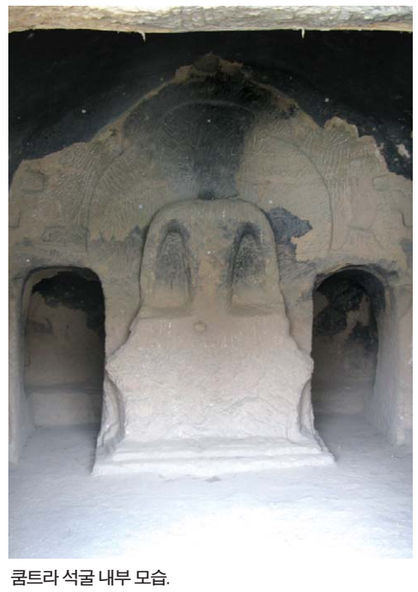
석굴 입구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자리한 쿰투라 수력발전소까지는 버스가 갈 수 있는 포장도로지만, 거기에서부터 석굴 밀집부까지 약 2km 강변 비포장길은 당나귀 수레를 타고 갔다. 망아지 크기 밖에 안되는 당나귀는 5~6명의 사람을 태우고도 힘차게 달려 불과 몇 분만에 석굴 밀집부에 데려다 주었다.

쿰트라 석굴은 키질 석굴이나 키질가하 석굴보다 늦은 5~10세기 사이에 조영됐다. 초기에는 키질 석굴 등 영향을 받은 벽화가 그려졌지만 7세기 이후 당나라의 직접 지배를 받은 후로는 당나라 불교 미술의 주요 주제인 변상도와 아미타삼존, 약사삼존 등의 벽화가 등장했다. 8세기말 위그르인의 쿠챠 진출 후 위그르 복장의 공양인 등 위그르 양식이 벽화에 나타난다. 쿠챠, 한족, 위그르 미술 양식이 한 곳에 보이는 것은 이곳만의 특징이다.

쿰투라 석굴 안쪽에 위치한 제68~72호까지의 다섯 석굴은 하나의 출입구를 공유하면서 서로 복도로 연결된 동굴이다. 네 개 석굴은 각기 본존을 모시는 예배굴이고 제69호굴은 승려들이 모여 법회를 보는 법당굴이다. 쿰투라에는 다섯 개 석굴이 하나로 연결된 '오련동(五聯洞)'이 여러 개 분포한다. 이는 쿰투라 석굴만의 특징이다.

제68~72호굴 벽화도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불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간혹 불탄 천정 벽화 사이로 이전 시기 벽화의 모습들이 보였다. 앞 시기 벽화를 덮고 있던 후대 벽화가 이슬람교도에 의해 떨어져 나가면서 보인 것이다. 파괴가 파괴로 그치지 않고 사라졌던 처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쿰투라 석굴을 나오는 길에 샤하르트 사원터를 들렀다. 폐허만 남은 샤하르트 사원은 현장 법사 방문 당시 쿠챠 불교를 대표하던 목차국다가 머물던 사찰이다. <대당자은사삼장법사전>에는 현장


쿰트라 석굴 내부 모습.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평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곧 마음법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속의 생활은 마음먹은데로 흘러 가지 않아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안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음편히 스님, 불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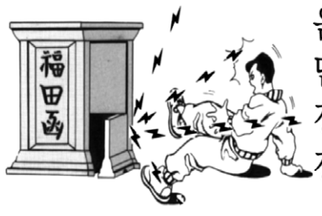
변호사 강영화 · 김기현 합장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강영화 변호사 | 031)436-3114 |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054 | 017-535-068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